

딸 취업 학교법인 대표에 5억 더 뜯으려 대통령까지 사칭

윤장현 전 시장에 취업 청탁 받은 학교법인 대표 말 들어보니

‘윤장현 보이콧’ 사건의 사기범 김모(49) 여인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. 김씨는 혼자 권여사·권여사 비서·대통령·노정연 등 1인 6역을 하는 대담무쌍한 모습을 보였다.

5일 광주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학교 대표 A씨는 올 9월 직원들과 점심을 먹다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. 낯선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‘권양숙 임니다. 윤 시장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’라는 메시지로 통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. 직원들에게 “뒤 권양숙, 딱 보니 보이콧사이다”고 하니, 직원 한명이 “제가 흔 좀 널랍니다”고 답하며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. 근데 이상했다. 받을 것 같지 않은 전화를 받더니, “권여사님 비서인데 여사님께서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”고 했다는 것. 윤 시장에게 전화를 하니 “어이 아유님, 권여사님 맞네. 내가 번호 드렸어. 감 사전화하려고 했겠지, 올 1월 그 거 말이야”라는 답이 왔다. 순간 A씨 머리에 지난 1월의 “아유님,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광주를 위한 일이니 꼭 좀 도와주소”라는 말과 함께 요청했던 기간제 교사 채용 부탁전화가 뇌리에 스쳤다.

윤 시장과의 전화를 끊고 다시 문자 전송자에게 전화를 거니 자신을 권양숙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“(재용해 준) 그 교사가 실은 노 대통령 딸입니다. 혼외 딸요.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순천 목사 보살님 아래 커왔는데 성인이 돼 찾아왔지요.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... 그래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문 대통령이 수시로 안부도 챙겨주시고. 이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”라며 흐느꼈다고 한다. (이 순간 A씨는 인격적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주변에 밝힘)

이어 사기꾼 김씨가 “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사장님께서 아들도 혹시 거둬주실 수 있는지요. (아들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 퇴사를 앞둔 상황인 시집)”하자, A씨는 “회사에 당장 자리도 없고 처우가 변변찮아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검토해보겠다”고 답했다. A씨는 나중에야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아니라 김씨의 자식임을 알았다고 한다. A씨 일

정상회담 위한 평양방문 시기

대통령 행세 문자로 돈 요구

권여사 딸 노정연씨도 들먹여

사기 같아서 윤 시장에게 전화

윤 시장은 권여사님 맞다고 해

봉하마을에 팩트체크 “사기”

경찰 내사로 ‘1인 6역’ 들통

가는 사립학교와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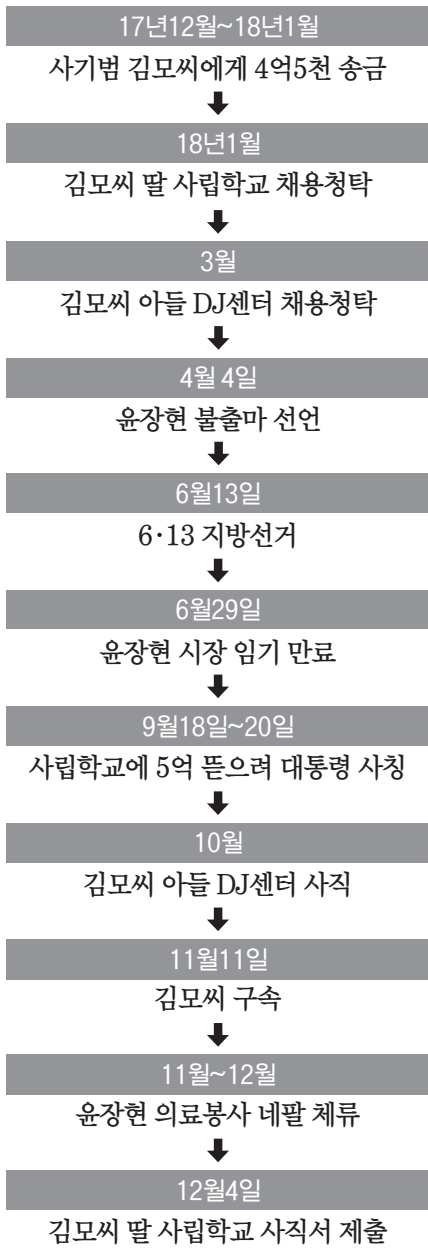
사기범에 알려진 A씨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은 거액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이다. 미국에서 잠시 들어온 딸(노정연)이 내일 출국해야 하는데 돈이 일시에 막혔으니, 재외 동포 관리를 필요로 한 5억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. A씨는 다시 윤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. 같은 답이 돌아왔다. 권 여사가 맞다는 것이다.

아무래도 미심쩍어 봉하마을과 선이 닿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팩트체크를 부탁했다. 딸 정연씨 귀국 여부 등을 물었는데, 사실이 아니라는 봉하마을 쪽 답변이 되돌아왔다. 윤 전 시장에게 다시 “시장님 이거 사기요. 사기”라고 알렸지만 “내가 아이 키운 사람도 만났다”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.

요구한 5억원을 보내주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왔다. 메시지 속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. “저 문재인입니다. 권여사님과 통화했습니다. 권여사님 부탁은 제가 한 거랑 같습니다. 국가를 위해 결단해주십시오.”

문 대통령 문자메시지 자체가 황당하기도 했지만,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 백두산을 방문 중이던 시기였다. 황당-놀라움을 넘어 ‘이 사람들 이거 이리다 더 큰 사고를 치겠구나’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한다. 동시에 이 사실을 알리면 학교와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큰 피해

윤장현 전 시장 사기 피해 사건 개요



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. 지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봉하마을에 전달했고, 얼마 안돼 경찰 내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.

대표 A씨는 광주일보에 “내가 소위 진보 인사도 아니지만 이명박-박근혜 정권에서 설움당한 권 여사님 얘기, 세상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혼외 딸 얘기 등을 꾸며내 나도 모르게 말려들었다. 모쪼록 윤 시장이 조속히 귀국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랄뿐”이라고 말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윤장현 전 시장 채용 청탁 중학교 기간제 교사 사직

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 교사가 학교를 떠났다.

5일 광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기간제 교사 조모(여·30)씨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. 학교 측은 사표 수리 여부

를 검토 중이다.

조씨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행고 자녀 취업까지 정탁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딸이다.

조씨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공모를 거

쳤지만, 김씨의 청탁을 받은 윤 전 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.

역시 청탁을 통해 채용된 의혹을 받는 김씨의 아들도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“내 점수 잘 나왔을까?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“혼외자 말에 모든 판단력 사라져...정말 바보같은 행동”

윤장현 전 시장 단독 인터뷰

“고(故)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는 말에 모든 판단력이 사라진 것 같다. 일단 (혼외자 사실이) 외부에 노출되면 안된다는 생각 뿐이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. 그저 모든 게 미안하고 죄송하다”

내팔에 머물고 있는 윤장현(69) 전 광주시장은 5일 광주일보와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“에베레스트 산에 있다”면서 “다음주 초 귀국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명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”고 밝혔다.

윤 전 시장은 “권양숙 여사라고 믿었던 사람과의 통화 중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 이야기가 튀어나와, 너무 당황스러움 나머지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”고 자책했다.

윤 전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(49)씨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다.

윤 전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‘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’이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. 5억원을 빌려달라’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.

윤 전 시장은 곧바로 확인 전화를 했고, 권 여사 행세를 한 김씨와 30여분간 통화를 했다. 이 과정에 “남편의 혼외 자식을 뒤늦게 알게됐고, 이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인을 보냈더니 만나보라”는 소리를 들었다.

윤 전 시장은 “전화 말미에 노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

고 노무현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내이름으로 송금까지 했겠나 다음주 초 귀국해 소명할 것

다. 소설처럼 어떤 생각이 스쳐갔고, 내 머리에 무엇인가가 꽂혔다”면서 “이대로 두면 전국이 또 한번 발칵 뒤집힐 수 있겠구나”라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다.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된 듯 하다”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

윤 전 시장은 특히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전화 통화에서 ‘정말 어려운 말을 꺼낸다. 이제서야 알았는데 역사가 무너진다. 비서관한테도 말할 못했다. 노 대통령이 순천 한 목사의 딸과의 사이에 남매를 뒀다. 노무현 핏줄 아니냐.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. 이들을 좀 도와달라’고 말했다며 “당시엔 실제 권 여사로 알고 있던 인물(사기꾼 김씨)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하자, 순간 모든 판단력을 상실했다”고 자책했다.

윤 전 시장은 또 김씨가 권 여사의 실제 딸(노정연) 이름까지 사칭하면서 송금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. 그는 “(정연씨가)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중국상하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4차례에 걸쳐 부랴부랴 송금을 했다”고 덧붙였다.

그동안 한 번도 사기일 것이라는 의심을 해보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“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”면서 “특히 외부에 알려지면 안될 것 같아 이를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다”

고 후회했다.

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“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는데 ‘공천’으로 연결되어 참담하다.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내 이름으로 송금까지 했겠느냐”면서 “사실 최근(10월)까지도 사기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”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“13일이 공직선거법 수사 만료인지도 몰랐다”며 “조기 귀국해 소명하겠다”고 말했다.

윤 전 시장은 또 “김씨가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을 거론하며 (경찰) 조사에서 이른바 ‘바’ 말을 거론했다”며 “이 같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혔었다”고 강조했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사업 얘기하다 업주·직원 주먹질

○...성인PC방을 운영하는 40대 업주와 직원이 사업 전망(?)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과 소주병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.

○...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업주 A(48)씨는 5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성인PC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B(47)씨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고, B씨는 이에 대항해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

○...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에게 “비전있는 사업을 보여주겠다”고 꼬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 A씨는 경찰에서 “후배가 약속이 틀린 것이냐고 사장인 나한테 대들자 참지 못하고 들이받았다”고 진술. /김용희 기자 kimyh@



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(주)

“20년 경력의 조여사 010-6211-4585”

경,공매 컨설팅

수익형 추천 물건

- ★ [건물]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(일반상업지역) 토지:500㎡(151평) 건물:2500㎡(756평) 지상6층 매매가:45억 중심상권, 아파트밀집지역 (보증금 10억, 월수입 1천)
- ★ [건물] 광주 동구 금남로5가(중심상업지역) 토지:912.50㎡(276평) 건물:1,477.64㎡(446.9평)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:48억 대로변, 전시효과최상
- ★ [건물] 광주 광산구 송정동 (일반상업지역) 토지:1,349㎡(408평) 건물:1,350.03㎡(408.3평)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:61억 8차선대로변
- ★ [건물]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:7,662.4㎡(2,317.8평) 건물:6,864.61㎡(2076.5평) 지상3층 매매가:105억 아파트밀집지역, 복합사우나건물 (보증금 4억3천, 월수입 2천7백)
- ★ [건물] 광주 서구 농성동 (준주거지역) 토지:3,104.6㎡(939.1평) 건물:11,543.18㎡(3491.8평) 지상9층 매매가:100억 대로변, 전시효과최상 대로변, 지하철역세권, 전시효과 최상, 수익률최상

병원

- ★ [의료시설]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:900㎡(272평) 건물:1,900㎡(547평) 지상6층 매매가:36억
- ★ [의료시설] 광주 동구 학동 토지:770㎡(233평) 건물:1,458㎡(441평)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:30억 아파트 밀집지역, 대로변, 조대병원인근
- ★ [의료시설]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:514.40㎡(155.6평) 건물:2,143.08㎡(648.2평)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:32억 약국, 병원, 업무시설 적합
- ★ [의료시설]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:580.40㎡(175.57평) 건물:2,889.86㎡(874.18평)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: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, 주변 아파트밀집지역

토지

- ★ [토지]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:52,504㎡(15882평) 매매가:8억 임야, 계획관리지역
- ★ [토지]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:5,324㎡(1611평) 매매가: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,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
- ★ [토지]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:9,157㎡(2770평) 매매가: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,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

광주·전남 병원건물(요양, 한방)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·임대 다량보유

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-714-2251